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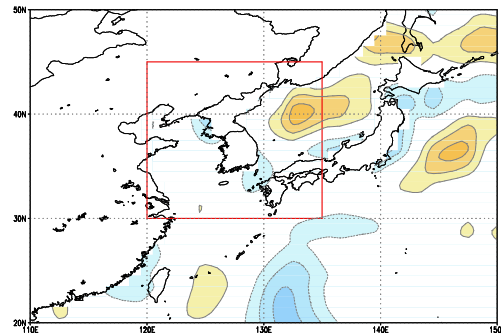


이상기후 감시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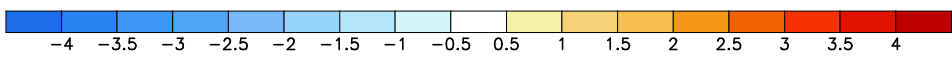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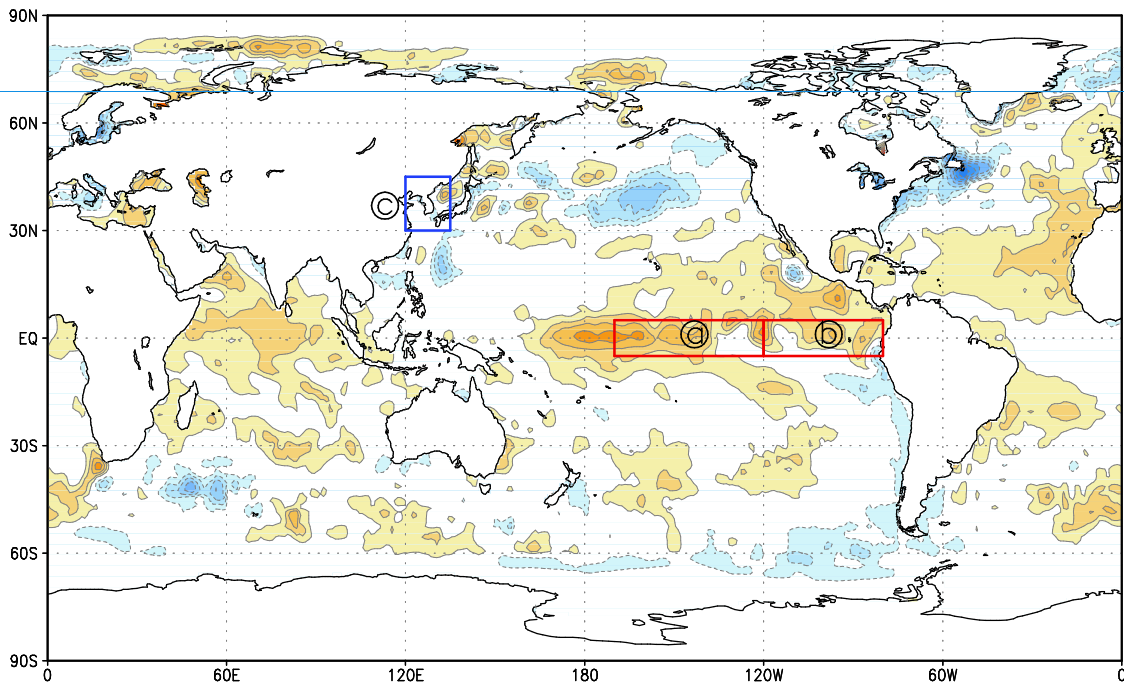
기상청 기후예측과 <http://www.kma.go.kr>

◆ 해수면온도 현황

고수온의 중심이 열대 중태평양으로 이동한 가운데, 엘니뇨 감시구역(ⓐ: Niño 3.4, 5°S~5°N, 170°W ~120°W)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약 1.1°C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열대 동태평양(ⓑ: 5°S~5°N, 120°W~80°W)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약 0.8°C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 30°N~45°N, 120°E~135°E)의 해수면온도는 평년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온도 편차



해수면온도 편차 (2009.10.18~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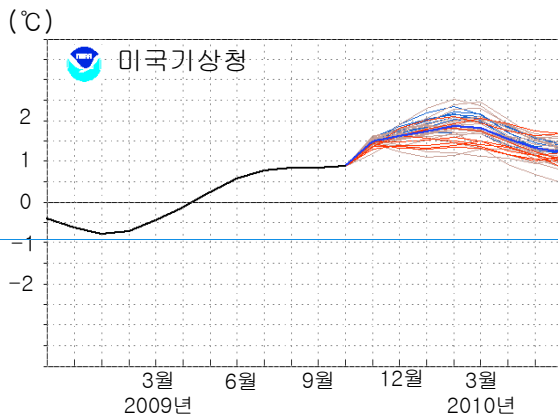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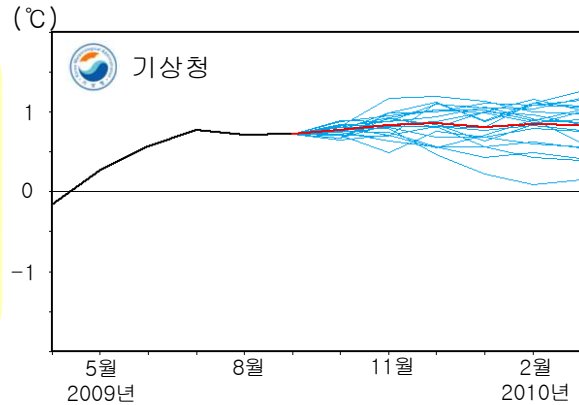
기상청 웹진 '이상기후 감시 Update'를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은 기후예측과 (cl_pre@kma.go.kr)로 구독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엘니뇨 / 라니냐 예측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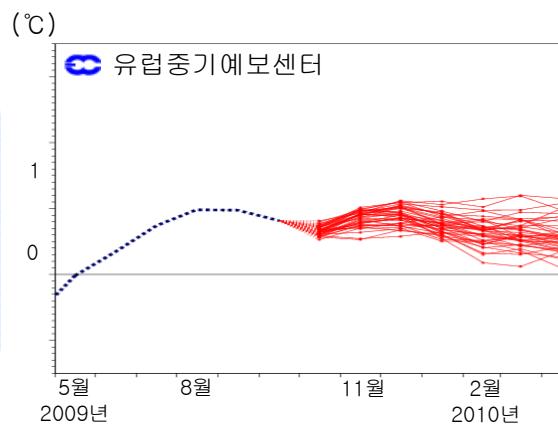
※ 엘니뇨 감시구역 (Niño 3.4 : 5°S~5°N, 170°W~120°W)

기상청 엘니뇨 예측모델은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가 2010년 3월까지 평년보다 약 0.9℃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미국 기상청 엘니뇨 예측모델 결과에서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약 1.5℃ 높은 엘니뇨 상태가 2010년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엘니뇨 예측 모델은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가 2010년 3월까지 평년보다 약 0.5℃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엘니뇨 예측모델 결과에 따른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여, 겨울철까지 엘니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의 기상재해 (2009년 10월)



◆ 폭설/강풍

여름 문턱에 들어선 **뉴질랜드**에서는 4일 100cm의 폭설로 도로를 달리던 많은 차의 발이 묶이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뉴질랜드 경찰과 민방위 관계자는 뉴질랜드 북섬의 타우포와 네이피어 사이 산간지역 5번 국도를 달리던 차들이 이날 쏟아진 폭설로 발이 묶이면서 900명이 일시 고립되고 이 지역에 민간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폴란드**에서도 때 이른 겨울이 찾아와 시속 90km의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몰아쳤다.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전기가 끊기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추위 속에 떨어졌다. 또 강풍에 쓰러진 나무들로 인해 주택 수백 채와 승용차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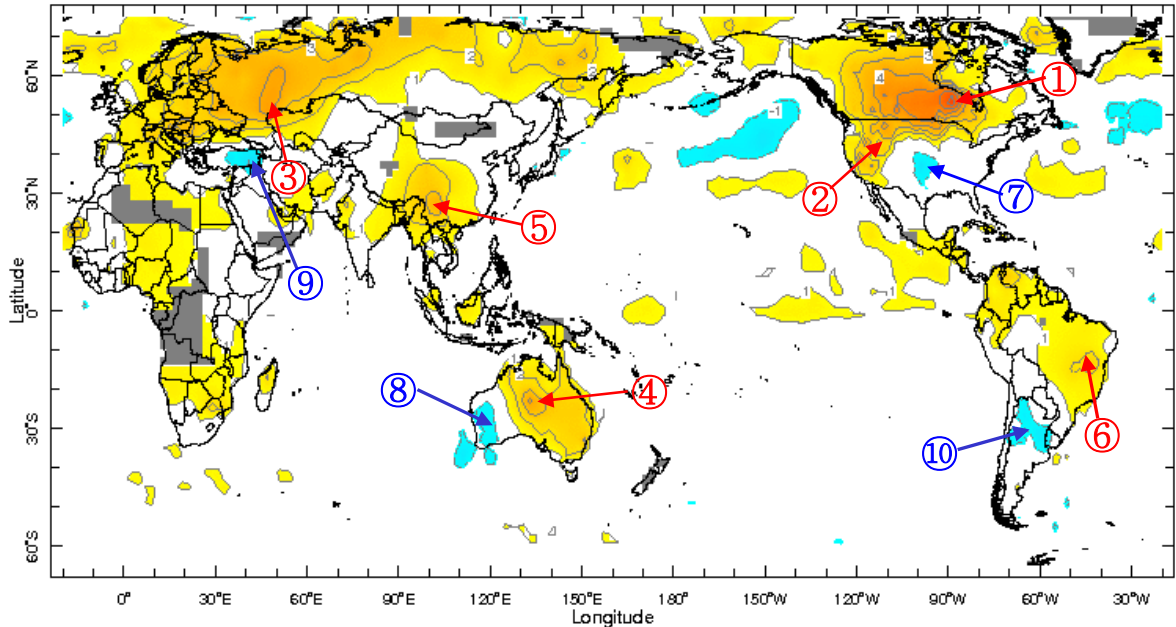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도 폭설로 인한 정전사태가 발생해 수천 가구가 암흑 속에 밤을 보내야 했으며, **터키**에서도 강풍과 폭우로 관광객들이 고립되면서 중장비 구출작전이 벌어졌다.

◆ 지진/태풍/폭우

지난 달 29일 남태평양 사모아 제도에서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하고, 30일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파당시 인근에서 7.6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 같은 날 **페루**의 남동지역에서도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4일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서남쪽 100km 해저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들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의 인요 카운티에서도 1일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3일에도 로스엔젤레스에서 북쪽으로 320km 떨어진 킬러 마을 인근에서 규모 4.5 지진이 일어나는 등 최근 한 주 동안 수백 건에 이르는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최근까지 가뭄에 시달리던 **인도** 남부는 1일 시작된 폭우로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남부 카르나타카주와 안드라프라데시주 등에서는 22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필리핀에서는 3일 초대형 태풍 '파르마'가 상륙하면서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계의 기온현황 (2009년 9월)



2009년 9월 기온편차

2009년 9월의 전지구 월평균 기온은 20세기 평균(15.0℃, 1901~2000년)보다 0.62℃ 높았으며, 이는 1880년 이래 **두 번째 높은** 기온이다. 반구별 월평균 기온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20세기 평균보다 각각 0.71℃, 0.53℃ 높았다. 우리나라의 9월 기온은 평년(1971~2000년, 20.2℃)보다 0.8℃ 높아 1973년 이래 **열 한 번째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다.

★ 고온

캐나다(①), 미국 북서부(②), 러시아 서부(③), 호주 일부(④), 아시아 대부분(⑤), 브라질(⑥) 등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다.

★ 저온

미국 중부 일부(⑦), 호주 서부(⑧), 터키 동·북부(⑨), 아르헨티나 북부(⑩) 등의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였다.